

현대차 (005380)

2026년 CID Takeaways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joonsung.kim@meritz.co.kr

RA 배현서

hyeonseo.bae@meritz.co.kr

2026년 CID, 아쉬움이 남는 세부사항 공유

현대차가 CID (CEO Investor Day)를 통해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각 비전의 세부사항과 비전 설정의 전제가 되는 시장 환경 인식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1. 2030년 판매 목표, 550만대

현대차 전세계 도매판매는 2023년 연간 422만대, 2024년 연간 414만대, 2025년 연간 414만대, 2026년 상반기 197만대였다. 하향 정세 추세가 뚜렷하다. 2030년 550만대 판매 목표 제시는 판매 성과의 흐름을 바꿔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현재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최대 화두는 중국 자동차 굴기와 스마트카 대중화다. 2026년 7월 중국 브랜드 해외 수출은 +81% YoY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인 104만대를 기록했다.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2023년 485만대, 2024년 585만대, 2025년 706만대에 이어 2026년에는 1,10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들의 중국 내수 시장 제외 해외시장 합산 판매점유율은 이제 20%에 육박한다. 스마트카 대중화도 본격화되고 있다. 스마트카 인지 확산과 수요 전환이 빠른 대표적 시장이 바로 한국이다. Tesla Model Y가 그랜저, 쏘렌토 등 국산 모델들을 제치고 단일 모델 최대 판매 차량으로 올라섰다.

공격적 판매 전망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차종 확대 (50종→100종) 및 파워트레인 추가 (EREV 라인업 추가)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쟁업체들 대비 비교우위의 판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 럭셔리, 제네시스의 새로운 10년

제네시스는 성공적이었다. 출범 이후 7년 8개월 만에 누적 100만대 판매를 달성했다. 렉서스 (9년), 인피니티 (14년)보다 빠른 기록이다. 발 빠른 라인업 확대 전략이 유효했다. G70, G80, G90, GV60, GV70, GV80 등 다양한 크기와 가격대의 모델을 적시에 투입하며 경쟁사 수요를 흡수했다. (2페이지에서 계속)

Meritz Research 2026. 8. 27

현대차는 이번 CID를 통해 다음 10년의 성장 전략을 새롭게 제시했다. 지난주 출시한 초대형 럭셔리 SUV GV90을 전면에 내세웠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인 GV80 하이브리드도 공개했다. 제네시스 EREV 모델은 내년 초 출시를 예고했고, 스포츠카 마그마 GT도 준비 중이다.

지난 8년의 성공을 견인했던 라인업 확장이 여전히 핵심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시장은 ‘럭셔리’의 정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물론 Rolls-Royce Cullinan이나 Mercedes-Maybach GLS를 럭셔리의 정수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강하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노동을 배제하고 자율이동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차량을 새로운 럭셔리로 정의하는 소비층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제네시스의 성장 전략이 시장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라인업 확장을 넘어, 기술의 진화를 통해 재정 의되고 있는 럭셔리 시장의 수요 환경 변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3. 피지컬 AI, 로봇틱스 산업화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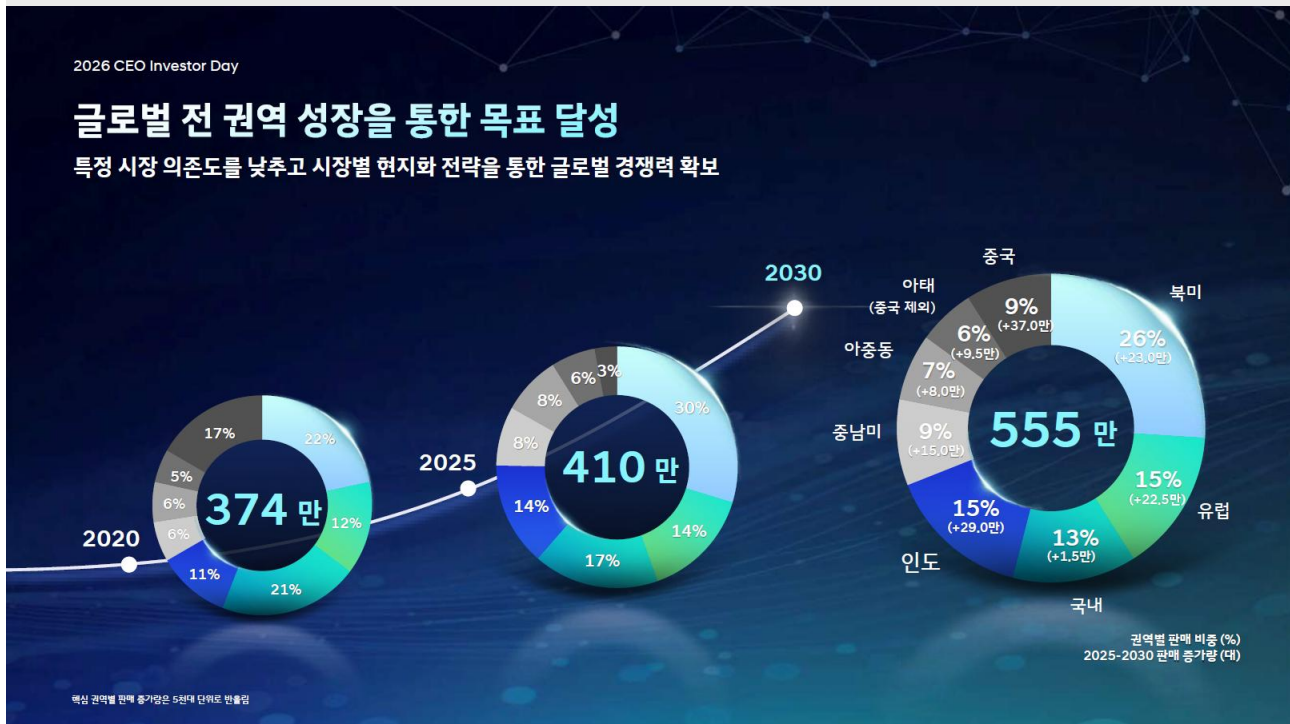
CID에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구상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다. SDV, 온디맨드 모빌리티 (로보택시), 로봇틱스 (스마트 팩토리)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내용은 부재했다. 대부분 기존에 이미 알려진 계획의 재확인에 그쳤다. Boston Dynamics는 Atlas를 포함한 로봇 디바이스들을 현대차 메타플랜트 (HMGMA)의 응용센터 (RMAC)에 투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완성차 조립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지능 개발에 도전한다. 2028년 그룹 계열사 조립 공정 투입과 2030년 그룹 외부 고객 매출 발생을 계획하고 있다. 로봇 대량 양산 거점은 연내 발표될 것이며, 해당 거점의 양산 능력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연간 3만대다. 스마트카 또한 2025년 3월 Pleos 개발자 포럼에서 공개됐던 계획대로 2028년 중 소비자 판매 시작을 목표로한다. 데이터 확보량과 데이터 훈련 속도 가속을 위한 대량 판매 개시 시점도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2030년이다.

Google · Nvidia와의 피지컬 AI 협력 기대감, 여전히 유효

현대차의 기업가치는 기존 차량 제조 · 판매 시장에서의 성과가 아니라 피지컬 AI 시장으로의 진입 여부에 따라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는 지난 1월 Google Deepmind와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고, 지난 6월에는 Nvidia의 Jensen Huang과 새만금 AIDC 공동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 AI 중심의 사업 전개를 이뤄온 Google · Nvidia는 피지컬 AI로의 영역 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현대차와의 협력 구체화가 연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확인이 2026년 하반기 현대차 기업가치 평가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1 현대차, 2030년 전세계 판매 목표 550만대 제시



자료: 현대차

그림2 외형 확장을 통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와 차종 믹스 개선을 통해 수익성 개선 또한 목표



자료: 현대차

그림3 판매 증대를 위한 주요 전략 #1, 파워트레인 라인업 확대



자료: 현대차

그림4 판매 증대를 위한 주요 전략 #1, 신차 출시 확대 (기존 50종에서 100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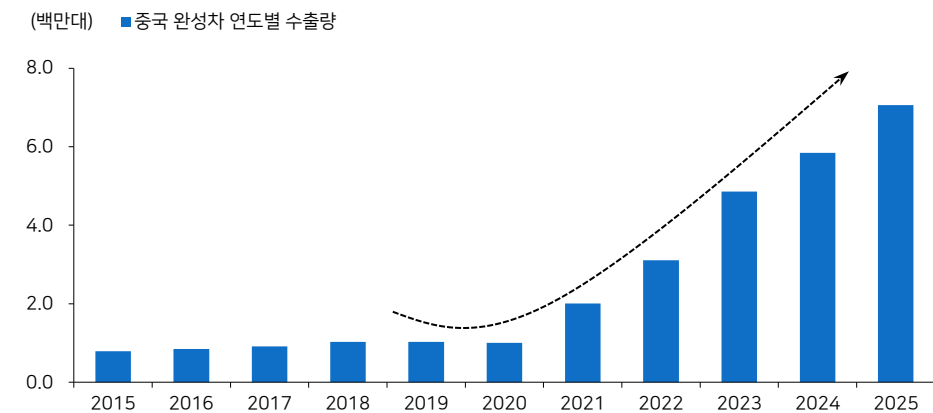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

그림5 중국 브랜드 차량 합산 수출, 가파른 성장세 기록 중



자료: CAA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2030년 550만대 달성 위해 가장 큰 위협이 될 중국 브랜드에 대한 대응 전략 구체화 필요



자료: CAA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제네시스, 신차 라인업 확장을 통한 다음 10년의 성장 계획을 발표

2026 CEO INVESTOR DAY

제네시스 첫 하이브리드 출시

럭셔리 퍼포먼스의 새로운 정의



- +25% 효율 및 성능 개선
복합 연비 개선 | 352PS
- 수냉식 하이브리드 배터리 적용
공냉식 대비 최대 방전 출력 강화
- 전기차 주행감성 극대화
스태이 모드 | 스마트 회생제동

GV80 하이브리드 모델
2026년 9월 출시 예정

자료: 현대차

그림8 그러나 최근 스마트카의 부상과 함께 수요 환경이 재정의 중인 럭셔리 시장에 대한 고민 공유 또한 필요

2026 CEO INVESTOR DAY

GV90 공식 런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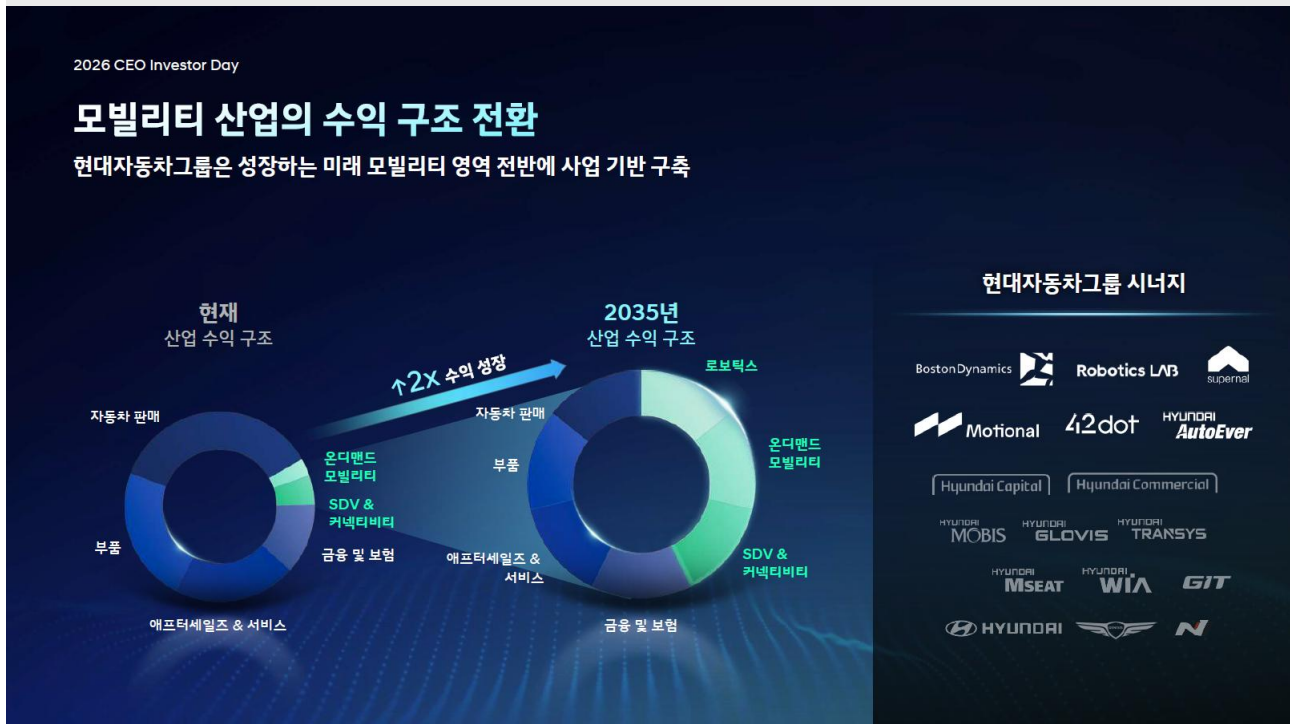
제네시스 라인업의 최정수, 럭셔리 EV SUV의 새로운 기준점 제시



- TIMELESS DESIGN
네오론 아치 게이트 | 환원주의적 디자인
- MAJESTIC CABIN SPACE
스위블링 시트 | ADAPTIVE UX | SENSORY CMF
- NEXT GENERATION TECHNOLOGY
OLED 시네마틱 디스플레이 | 세계 최초 루프 에어백

자료: 현대차

그림9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시장 내 로보틱스, 온디맨드 모빌리티, SDV 등이 핵심 사업군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자료: 현대차

그림10 기존 차량 제조 및 판매 사업의 외형과 손익을 지켜내며,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포부 공개



자료: 현대차

그림11 Boston Dynamics, 2028년 그룹 계열사 조립 공정 투입 및 2030년 그룹 외부 고객 매출 발생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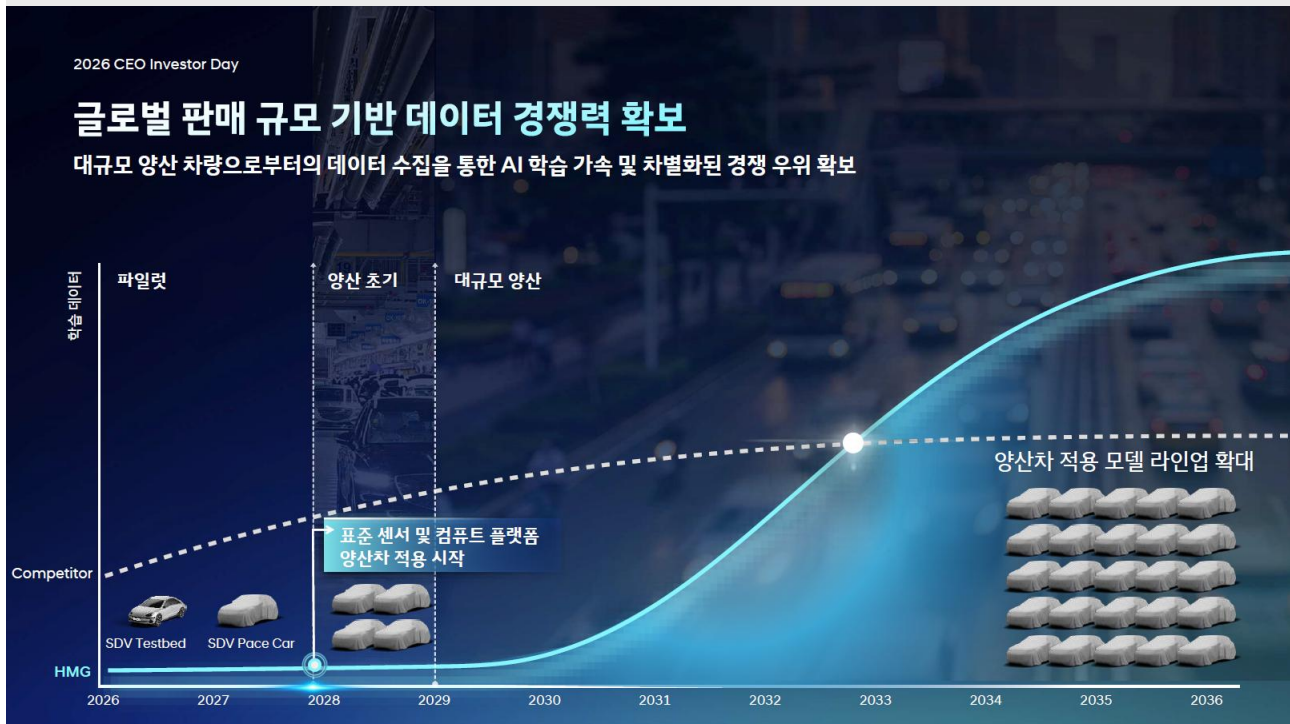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

그림12 Boston Dynamics, 2028년 종합 양산 역량 30,000대 확보 목표



자료: 현대차

그림13 스마트카, 2028년 소비자 판매 개시 및 2030년 대량 양산 시작 목표



자료: 현대차

그림14 지능 훈련 위한 AI 데이터센터, 로봇 외부 매출 발생과 스마트카 대량 양산 시작되는 2030년 전후 본격 가동



자료: 현대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해당 추천 종목을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